

생활 방역으로 전환 개학 기대반 우려반

코로나19 확진자 급감 ... 13일 고3부터 순차적 등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 초·중·고의 교문이 조만간 열린다. 교육당국은 등교개학에 동의하면서도 학교 내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2·7면〉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교 수업 방안'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의 등교수업이 오는 13일 대입 준비가 급한 고3학년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지난달 9일 온라인 개학을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오는 13일 고3 등교에 이어 20일 고2·중3·초1~2 학생, 27일 고1·중2·초3~4학년이 순차적으로 등교한다. 마지막으로 6월 1일에는 중1·초교 5~6학년이 등교수업을 시작한다.

앞서 고학년부터 이뤄졌던 온라인개학과 달리 등교수업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고학년부터, 초등학교 이하는 저학년부터 시작하는 셈이다. 이는 유치원과 초1·2학년은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데다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돌봄공백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도 고려됐다.

교육부는 또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다르고 학교별로 학급인원 등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 사·도·교의 판단에 따라 등교수업의 일정과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경우 재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고교는 13일부터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 전남지역의 재학생 60명 이하 초·중·고교는 분교장을 포함해 모두 365개교에 이르며, 이 중 초등이 239개교 그리고 중학교가 126개교다. 전체 733개교의 49.8%에 달한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등교수업이 이뤄지면 학교 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들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염 위험이 큰 급식의 경우 학년별로 배식시간을 분산하거나 개인별 임시 칸막이를 사용하는 등의 예방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더 이상 등교를 미룰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학교 내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은 시간차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오전·오후반 운영 등으로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등교 1주일 전부터 학생 건강 조사를 통해 유증상자를 걸러내고, 등교 이후 확진자 발생 땀 모든 학생·교직원을 격리한 뒤 원격수업으로 전환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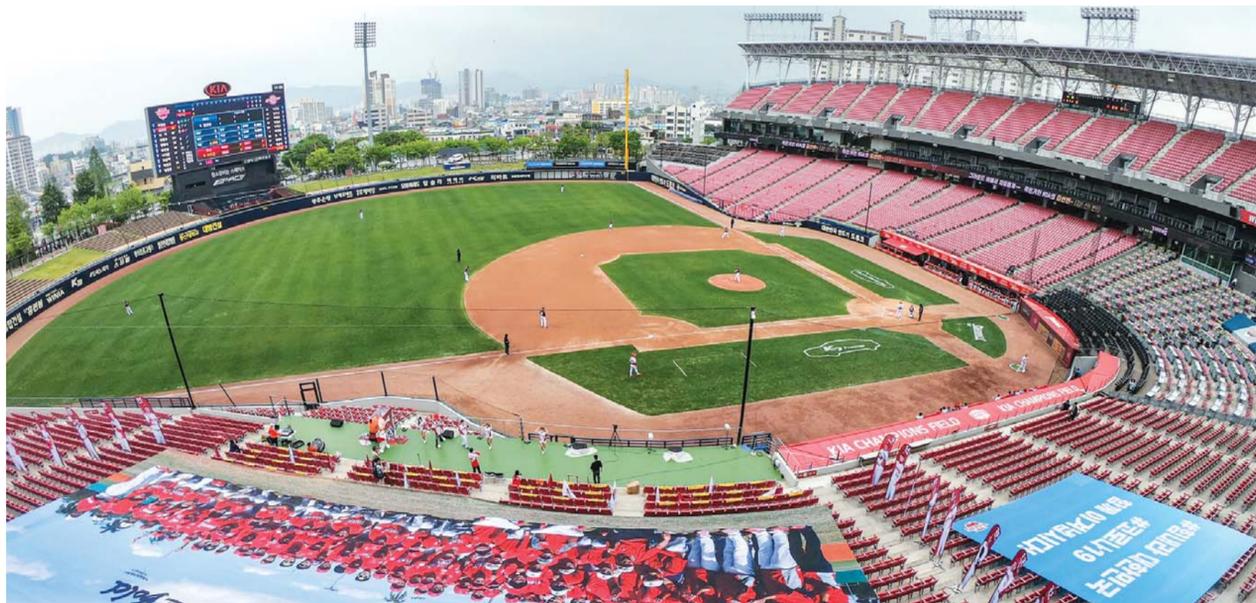
초등학교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이제 아이를 등교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학교에서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반반"이라며 "학교 내 집단감염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학교방역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등교 이후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 에어컨·선풍기·공기정화기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사·도·교육청에 보낸 방역지침에서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선풍기 가동 금지"라고 명시했다. 공기정화기·에어컨에 의해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날씨가 더워지는 5월이 됐기에 감염병 전문가 등과 협의해 에어컨 사용 지침을 새로 만들어 등교 이전에 일선학교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코로나 '아웃' ... 한국 프로야구 세계가 주목



KBO리그 사상 첫 무관중 개막전이 5일 광주를 비롯한 전국 5개 구장에서 치러졌다. 이날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전이 열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이 텅 비어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무관중 개막 ... 세계 각국 취재 열기 '후끈'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국에 쏠렸다. 이번에는 무관중 개막한 프로야구 그라운드였다.

〈관련기사 18면〉

KBO가 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키움 경기를 비롯, 전국 5개 구장에서 개막전을 갖고 2020시즌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KBO리그는 프로야구로는 세계 두 번째로 개막했다.

KBO리그는 이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무관중 경기를 진행했다. 심판과 경기 진행요원, 1·3루 코치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와도

격전을 치렀다. KBO는 당초 3월 28일 개막전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그라운드에도 영향을 미쳤다.

시범경기 취소에 이어 정규시즌 개막까지 미뤄지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됐다. 대장정을 시작했다. KBO리그는 프로야구로는 세계 두 번째로 개막했다. KBO리그는 이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무관중 경기를 진행했다. 심판과 경기 진행요원, 1·3루 코치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와도

격전을 치렀다. KBO는 당초 3월 28일 개막전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그라운드에도 영향을 미쳤다.

있었다. 대만보다 수준 높은 KBO리그 개막이 확정되자 세계 야구팬들이 들쭉였다.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밤에는 미국 ESPN과 일본 SPOZONE 등을 통한 해외 생중계까지 확정되면서, 'KBO'가 5일 세계 SNS의 핵심 키워드가 됐다.

KBO 개막전이 열린 오후 2시, 미국 야구팬들에게는 새벽 시간이었지만 인터넷에는 실시간으로 KBO 경기에 대한 글들이 쏟아졌다.

한 미국 야구팬은 자신의 트위터에 "1월에 우리가 한밤 중에 한국 야구를 볼 것이

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꽤 재미있다"는 글을 올리며, 낯선 KBO 야구를 즐겼다.

"KBO의 개막이 야구 본고장 미국의 메이저리그 개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반응들도 있었다.

또 이날 미국 AP통신은 물론 카타르 알자지라 등 11개 외신도 SK와 한화의 공식 개막전이 열린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을 찾아 KBO 개막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기도 했다.

무관중으로 시즌을 열었지만 KBO가 전세계 스포츠팬들에게 희망을 쏘아 올렸다. 2020년 5월 5일은 KBO와 한국 스포츠계에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5·18 40주년 기념행사 전국서 81개 열린다

다중 모이는 행사는 취소

40주년을 맞는 올해 5·18 기념행사가 전국적으로 14개 사업부문에 81개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3, 5, 6면〉

'제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 행사위)는 '코로나19' 사태

로 행사 의미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가피한 행사를 포함해 방식의 전환 및 대체연기 가능한 행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81개의 행사는 기념사업 10개, 대체사업 7개, 부문 사업 7개, 전국 네트워크 사업 8개, 역사탐방사업 2개, 시

민참여사업 3개, 사업공모사업 20개, 국민아이디어 공모사업 4개, 기획사업 10개, 주관사업 1개, 홍보사업 6개, 교육청 지원사업 2개, 서구청 지원사업 1개 등이다.

기념사업인 5·18 40주년 추모제와 부활제는 최소 규모로 진행되고, 5·18사적지 등을 돌며 진행되는 민주기사의 날, 오월시민행진 '오월, 그날 WHO'도 축소해 실시된다.

다중이 모이는 행사가 전면 취소되자 이를 보완하는 행사로 마련된 대체행사는 경기도 안산-광주 자전거 순례와 5월

의 자전거 민주평화대행진, 5·18 영어스피치대회, 5·18민중항쟁 TV컨텐츠 제작사업 등이 추진된다. 부문행사로 문화(미술·연극)·노동·장애인·여성 등 사회각계 각층에서 5월 행사들을 준비한다.

전국네트워크사업은 부산·인천·대전·대구·울산·세종·충북·충남 등 지역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서울과 전남·전북은 자체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해남, 9일간 54차례 지진 미스터리	▶3면
다시 오월, 5·18 행사 본격화	▶6면
임영진 교수가 본 마한·식생활	▶22면
TV 프로그램·오늘의 운세	▶21면

촘촘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설화수 플레그니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플레그니스토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